

2021년 7-1

KIET 경제산업동향

2021. 7

산업연구원
동향·통계분석본부

< 차례 >

< 요약 >	1
1. 해외경제	3
2. 실물경제	6
3. 국내금융	8
4. 산업별 동향	10
5. 고용	12
6. 수출입	13
< 부 록 >	
美 바이든 행정부 ‘4대 핵심품목’ 공급망 검토 결과 및 시사점 [포스코경영연구원 (2021.6월)]	16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18

< 요약 >

□ 해외경제 : 미 연준(Fed) · 유럽중앙은행 올해 성장률 전망치 상향

- 미국은 5월 경제지표들이 부문간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연준이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한편, 올해 말 성장률 전망치를 7.0%로 상향
- 일본과 유로존은 4월중 생산 확대와 소비 감소 등 실물지표들의 부문간 혼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올림픽을 앞두고 4차 긴급사태를 재선포하고, 유럽중앙은행은 올해 역내 성장률 전망치를 4.6%로 상향
- 중국은 지난 5월중 내·외수 지표들이 전달보다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광둥성 등 주요 항구에서의 운송 차질에 따른 영향에 주목
- 달러화는 7월 초 변이 바이러스의 전세계 확산 우려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심리 영향을 받고 있으나, 미 국채 금리 급락세로 추가 상승이 제한적
- 유가는 OPEC+ 회의 연장과 미국 원유재고 감소세 등으로 6년 만에 최고치(WTI 기준)까지 상승한 이후,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으로 급반락

□ 국내경기 : 5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1%, 소비 · 투자 동반 감소

- 5월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생산이 4개월 만에 감소한 영향에도, 광공업생산이 전월보다 감소폭이 둔화한 영향 등으로 인해 전월비 0.1% 증가
 - 소매판매는 준내구재와 비내구재가 동반 감소한 영향으로 3개월 만에 감소하고, 설비투자도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동반 감소하면서 감소세

□ 금 용 : 5월 기업대출 둔화 · 가계대출 감소 전환, 7월 초순(7.1~7.9일) 금리 하락 전환 및 원/달러 추가 상승

- 5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 대출이 감소하고, 중소기업 대출이 전월보다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체 규모의 증가폭이 축소되고,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시)도 기타대출이 감소하면서 전월과 달리 감소

- 국고채(3년) 금리는 지난 6월에 이어 7월 초에도 추가 상승하면서 2019.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큰 폭 하락
- 원/달러 환율은 한은 관계자들의 연내 금리 인상 시사 발언에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외국인들의 주식 순매도가 이어진 영향 등으로 추가 상승

□ 산업별 동향 : 5월 제조업생산·서비스업생산 전년동월비 증가 지속

- 제조업생산은 전월에 이어 반도체와 자동차, 기계장비, 화학제품 등 다수 주력 업종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전년동월비 16.0% 증가
 - 제조업ICT와 중공업 생산은 두 자릿수 증가율, 경공업은 3개월 연속 증가
- 서비스업생산은 숙박·음식점에서 감소 전환하고, 도소매, 운수·창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에서 전월보다 증가폭이 둔화된 영향에도 4.4% 증가
 - ICT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비 3.6% 증가, 전월비 기준 1.3% 증가

□ 고용 : 5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2.3% 증가

- 지난 5월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에서 전월에 이어 소폭의 감소세가 이어진 반면에, 제조업과 SOC·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가 동반 증가세를 유지함에 따라 전년동월비 2%대 증가세가 지속(2.5% → 2.3%)

□ 수출입 : 6월 수출 +39.7%, 수입 +40.7%, 무역흑자 44억 달러

- 지난 6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39.7% 증가한 548억 달러, 수입은 40.7% 증가한 504억 달러로, 무역흑자 규모는 44억 달러를 기록
- 품목별로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반도체와 자동차, 일반기계 등 주요 품목에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된 데다, 유가 상승으로 석유 관련 품목들의 수출도 대폭 증가하고, 주요 지역들에 대한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3개월 연속 40% 내외 수준의 증가율

1. 해외경제

□ 미국 : 5월 경제지표 부진 지속, 연준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 지난 5월 생산 확대와 소비 감소 등 실물지표들이 부문간 혼조세를 보이고, 체감지표들 역시 혼조세를 나타내면서 경제지표들이 다소 부진. 연준이 조기 금리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연말 성장률 전망치를 7.0%로 상향

- 산업생산은 IT(1.5%) 생산 증가와 자동차·부품(6.7%) 생산 확대 등에 힘입어 전월비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소매판매는 바이든 정부의 코로나 19 현금 지원책(1.3월) 영향이 점차 소멸되면서 3개월 만에 감소 전환
- 체감지표는 ISM 제조업지수가 생산과 고용의 동반 하락에도 신규수주와 재고의 동반 상승에 힘입어 전월과 달리 소폭 상승한 반면에, 소비자 신뢰지수는 미래 기대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전월보다 하락
- 비농업 일자리 수는 제조업에서 증가세를 보이면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경기선행지수는 3개월 연속 전월 대비 1%대 상승률 지속
- 연준이 6월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0~0.25%)을 유지하면서도 조기 금리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올해 말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7.0%로 상향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3/4	4/4	1/4	2월	3월	4월	5월
국내총생산(GDP, 연율) (전년동기비, %)	2.2	-3.5	33.4 (-2.8)	4.3 (-2.4)	6.4 (0.4)				
산업생산 (IT생산)	-0.8 (3.9)	-7.2 (7.1)	9.6 (3.2)	2.0 (4.6)	0.9 (3.7)	-2.9 (1.1)	2.6 (2.2)	0.1 (1.4)	0.8 (1.5)
내구재수주	3.5	-13.6	23.8	4.7	5.5	1.3	1.3	-0.8	2.3
소매판매	3.3	0.3	14.2	0.4	8.0	-2.9	11.3	0.9	-1.3
소비자물가	1.8	1.2	1.1	0.6	0.9	0.4	0.6	0.8	0.6
실업률(%)	3.7	8.1	8.8	6.8	6.2	6.2	6.0	6.1	5.8
무역수지(10억US)	-576.3	-676.7	-187.1	-196.8	-212.8	-70.6	-75.0	-69.1	-71.2
ISM 제조업지수 ¹⁾	51.3	52.5	55.2	59.1	61.4	60.8	64.7	60.7	61.2
소비자신뢰지수 ²⁾	128.3	100.9	93.1	93.4	96.1	90.4	109.0	117.5	117.2
경기선행지수 ³⁾	111.6	106.1	106.3	109.0	110.6	110.1	111.6	113.0	114.5

자료 : 美 상무부, 노동부, 연준, 컨퍼런스 보드, 공급자관리협회(ISM).

주 1)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하회하면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함.

2) 1985년=100, 3) 2016년=100.

□ **일본 : 4월 생산 확대·소비 감소, 올림픽 앞두고 4차 긴급사태 선포**

- 4월 생산은 전월보다 증가폭이 더 확대된 반면, 소비가 3개월 만에 상당 폭 감소하는 등 실물지표들의 부문간 혼조세가 이어지고, 실업률도 상승. 올림픽(7.23일)을 앞두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높아지면서 일본 정부는 도쿄 등 주요 지역들에 대하여 4차 긴급사태를 선포(7.8일~8.22일)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국내총생산(실질GDP)	0.0	-4.7	5.3	2.8	-1.0				
광공업생산	-2.7	-10.6	9.0	5.7	2.8	3.1	-1.3	1.7	2.9
민간기계수주	-0.9	-8.5	-0.3	12.9	-5.3	-4.5	-8.5	3.7	0.6
소매판매	0.1	-3.5	8.2	0.1	0.4	-1.7	3.1	1.2	-4.6
소비자물가	0.5	0.0	0.0	-0.6	0.5	0.6	0.1	0.2	-0.4
실업률(%)	2.4	2.8	3.0	3.0	2.8	2.9	2.9	2.6	2.8
무역수지(10억엔)	-1,668	563	881	1,959	542	-327	212	658	249
경기선행지수 ¹⁾	93.9	89.0	90.0	96.6	100.0	98.3	99.2	102.4	103.8

자료 : 日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등.

주 1) 2015년=100.

□ **중국 : 5월 실물지표 둔화, 주요 항구 물류 차질로 인한 영향 주목**

- 지난 5월 생산과 투자, 소비, 수출 등 내·외수 지표들이 모두 증가세가 동반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0.9월 이후 처음으로 1%대 수준까지 상승. 광둥성 등 중국의 주요 항구에서 코로나19 재 확산 여파로 선적 지연 등 운송 차질이 발생하면서 경제적 영향에 주목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3/4	4/4	1/4	2월	3월	4월	5월
국내총생산(실질GDP)	6.0	2.3	4.9	6.5	18.3				
산업생산	5.7	2.8	5.8	7.1	24.6	35.1	14.1	9.8	8.8
고정투자(누계기준)	5.4	2.9	0.8	2.9	30.3	35.0	25.6	19.9	15.4
소매판매	8.0	-3.9	0.9	4.6	34.0	33.8	34.2	17.7	12.4
소비자물가	2.9	2.5	2.3	0.1	0.0	-0.2	0.4	0.9	1.3
수출(달러화기준)	0.5	3.6	8.9	16.9	45.6	60.6	30.6	32.3	28.0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유로존 : 4월 실물지표 혼조 지속, ECB 올해 성장률 전망치 상향

- 4월 역내 생산이 다소 확대된 반면, 소비가 3개월 만에 감소하면서 부문 간 혼조세가 지속되고 있는 양상.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존의 제로금리와 현 부양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6%로 상향

유로존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국내총생산(실질GDP)	1.4	-6.5	12.6	-0.6	-0.3				
산업생산	-1.4	-8.4	16.3	4.4	1.0	0.9	-1.2	0.4	0.8
소매판매	2.4	-1.1	10.2	-1.0	-1.8	-5.1	4.2	3.3	-3.1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2	0.3	0.0	-0.3	1.1	0.9	0.9	1.3	1.6
무역수지(10억유로)	223.0	234.5	62.1	75.7	69.9	28.1	23.6	18.3	9.4
경기체감지수 ¹⁾	103.7	88.2	88.5	91.4	95.3	91.5	93.4	100.9	110.3

자료 : 유로통계청(Eurostat), 유로중앙은행(ECB) 등.

주 1) 2000년=100.

□ 국제금융·유가 : 달러화 강보합 & 유가 변동성 확대

- 달러화는 지난 6월중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7월 초에도 변이 바이러스의 전세계 확산 우려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 영향을 받고 있으나, 미 국채 금리 급락세로 추가 상승이 제한적
- 유가는 OPEC+ 회의 연장, 미국 원유재고 감소세, 여름철 휘발유 수요 증가 전망 등으로 장중 한때 6년 만에 최고치(WTI 기준)까지 상승한 이후,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달러화 강세 등으로 급반락하면서 변동성이 확대

주요 국제가격

(기말기준, %, 달러/배럴)

	2020			2021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9일
엔/달러	104.66	104.31	103.25	104.68	106.57	110.72	109.31	109.58	111.11	110.14
달러/유로	1.1647	1.1927	1.2216	1.2136	1.2075	1.1730	1.2020	1.2227	1.1858	1.1876
미 국채 (10년만기)	0.87	0.84	0.91	1.07	1.40	1.74	1.63	1.59	1.47	1.36
WTI유	35.8	45.3	48.5	52.2	61.5	59.2	63.6	66.3	73.5	74.6
두바이유	36.9	46.6	50.2	54.3	63.1	62.4	64.5	66.6	73.0	73.5

자료 : 한국은행, 「국제금융속보」.

2. 실물경제

□ 국내경기 : 5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1%, 소비·투자 동반 감소

○ 5월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생산이 4개월 만에 감소한 영향에도, 광공업생산이 전월보다 감소폭이 둔화한 영향 등으로 인해서 전월비 0.1% 증가

- 광공업생산은 자동차(전월비 -6.6%)와 기계장비(-5.6%) 등에서 감소한 영향에도 반도체(5.3%) 등이 증가하면서 전월비 0.7% 감소하고, 서비스업생산도 도소매(-1.3%) 등에서 다시 감소 전환함에 따라 0.2% 감소

국내 실물경제 지표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3/4	4/4	1/4	2월	3월	4월	5월
실질GDP 성장률	2.2	-0.9*	-1.0* (2.2*)	-1.1* (1.1*)	1.9* (1.7*)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2.1	-5.0*	-4.5* (0.2*)	-6.6* (-1.3*)	1.2* (1.2*)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6.6	7.1*	10.7* (5.8*)	6.1* (-0.6*)	12.4* (6.1*)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1.7	-0.4*	-1.5* (-3.9*)	-2.9* (3.5*)	-1.8* (1.3*)	-	-	-	-
전산업생산지수	1.0	-1.2	-0.9 (2.8)	-1.5 (1.6)	2.7 (1.7)	0.4 (2.0)	5.8* (0.9*)	8.7* (-1.2*)	7.3* (0.1*)
광공업생산지수	0.4	-0.4	0.2 (6.0)	0.0 (2.9)	4.4 (3.4)	0.8 (4.2)	4.6 (-0.7)	12.6* (-1.6*)	15.6* (-0.7*)
제조업생산지수	0.5	-0.3	0.4 (6.4)	-0.1 (3.1)	4.4 (3.4)	0.9 (4.7)	4.7 (-0.8)	13.2* (-1.6*)	16.0* (-1.0*)
서비스업생산지수	1.4	-2.0	-1.7 (2.0)	-2.0 (0.9)	2.2 (0.7)	0.8 (1.1)	7.8 (1.3)	8.3* (0.2*)	4.4* (-0.2*)
소매판매액지수	2.4	-0.2	1.6 (-1.1)	-1.2 (0.9)	6.4 (1.7)	8.2 (-0.9)	11.1 (2.5)	8.7* (2.1*)	3.1* (-1.8*)
설비투자지수	-5.7	6.0	7.7 (2.2)	2.8 (0.8)	11.9 (6.9)	7.1 (-2.2)	9.6 (0.1)	17.1* (3.8*)	11.0* (-3.5*)
건설기성액	-2.3	-4.1	-4.2 (-2.8)	-5.3 (2.5)	-7.2 (-3.6)	-8.3 (6.8)	-5.6 (0.4)	-3.2* (-2.2*)	-7.6* (-4.1*)
동행종합지수(2015=100)	112.0	112.3	111.7	113.6	114.4*	114.3	115.1*	116.4*	116.7*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00.1	98.7	98.1	99.4	99.8*	99.7	100.2*	101.2*	101.4*
선행종합지수(2015=100)	114.6	119.5	120.0	122.5	124.7*	124.8	125.3*	126.3*	127.2*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99.5	100.5	100.5	101.9	102.9*	102.9	103.2*	103.7*	104.1*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전월비 1.0%) 판매가 증가한 반면에, 의복 등 준내구재(-8.8%, 2020.3월 이후 최대폭 감소)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4%) 판매가 동반 감소세를 보이면서 전월비 1.8% 감소
- 설비투자는 기계류(전월비 -3.0%)와 운송장비(-4.5%)에 대한 투자가 동반 감소하면서 전월비 3.5% 감소하고, 건설기성액(불변)도 토목(-8.5%)과 건축(-2.6%) 공사 실적이 2개월 연속 동반 감소하면서 4.1% 감소
- 동행종합지수는 건설기성액과 광공업생산지수 등이 감소함에도 비농림어업 취업자수와 수입액 등이 증가하면서 전월비 0.3% 상승(4개월 연속 상승)하고, 선행종합지수도 건설수주액이 감소한 반면에, 재고순환지표와 경제심리지수 등이 상승함에 따라 0.7% 상승(14개월 연속 상승)

□ 물가 : 6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1% 하락, 전년동월비 2.4% 상승

- 6월 소비자물가는 식료품·비주류음료(전월비 -1.1%)에서 비교적 큰 폭 하락한 영향에도 교통(0.8%)과 주택·수도·전기·연료(0.2%), 음식·숙박(0.2%) 등 다수 부문에서 상승한 영향으로 전월비 0.1% 하락(전년동월비 2.4%)
- 5월 생산자물가는 농림수산물(전월비 -1.2%)에서 낙폭이 축소된 반면에, 공산품(1.0%)과 서비스(0.1%)에서 상승폭이 전달보다 축소됨에 따라 전월비 0.4% 상승(전년동월비 기준 6.4%, 2011.8월(6.9%) 이후 최고치)

국내 주요 물가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3/4	4/4	1/4	2/4	2월	3월	4월	5월	6월
소비자물가	0.4	0.5	0.6 (0.6)	0.4 (0.1)	1.1 (1.2)	2.5 (0.5)	1.1 (0.5)	1.5 (0.1)	2.3 (0.2)	2.6 (0.1)	2.4 (-0.1)
근원물가	0.9	0.7	0.8 (0.2)	0.7 (0.0)	0.9 (0.6)	1.4 (0.6)	0.8 (0.1)	1.0 (0.1)	1.4 (0.3)	1.5 (0.3)	1.5 (0.1)
생산자물가	0.0	-0.5	-0.6 (1.0)	-0.2 (0.2)	2.3 (2.6)	-	2.1 (0.8)	4.1 (1.1)	6.0 (1.0)	6.4* (0.4*)	-
근원물가	0.1	-0.1	-0.2 (0.8)	0.5 (0.5)	2.4 (2.0)	-	2.1 (0.6)	3.8 (0.9)	5.6 (1.2)	6.1* (0.5*)	-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2) 소비자물가의 근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생산자물가의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지수를 각각 의미.

3. 국내금융

□ 기업자금·가계대출 : 5월 기업대출 둔화·가계대출 감소 전환

- 5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 대출이 소폭 감소하고, 중소기업 대출이 전월보다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체 규모의 증가폭이 축소
(21.4월 +11.4조원 → 21.5월 +5.7조원, 대기업 -0.8조원, 중소기업 +6.5조원)
 - 대기업 대출은 운전자금 수요 감소와 전월의 분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에 따른 계절적 요인 소멸 등으로 소폭 감소
 - 중소기업 대출도 은행·정책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이 지속된 반면에, 전월비 증가폭이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축소
- CP는 전월과 달리 순상환 기조로 전환
(21.4월 +2.3조원 → 21.5월 -1.1조원)
- 회사채 역시 전월의 큰 폭 발행 이후에 소폭의 순상환 기조로 전환
(21.4월 +3.2조원 → 21.5월 -0.2조원)
- 주식발행은 일부 대기업의 기업 공개 등의 영향으로 상당 폭 증가
(21.4월 +0.2조원 → 21.5월 +3.2조원)

기업 자금조달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19		2020		2021			21.5월말 잔액	
	1~5월	5월	1~5월	5월	1~5월	3월	4월		5월
■ 은행 원화대출	25.7	6.0	76.2	16.0	40.7	4.6	11.4	5.7	1,017.1
(대 기업)	3.0	0.6	27.5	2.7	2.4	-2.7	2.0	-0.8	174.2
(중소기업)	22.7	5.4	48.6	13.3	38.3	7.3	9.5	6.5	842.9
<개인사업자>	9.6	2.0	26.1	7.7	16.2	3.6	3.8	2.3	402.2
■ 회사채 순발행	7.0	0.5	6.3	3.3	10.8	1.9	3.2	-0.2	..
■ CP 순발행	4.9	-1.3	6.8	-0.7	6.9	0.7	2.3	-1.1	29.8
■ 주식발행	2.5	1.5	0.9	0.1	12.4	6.6	0.2	3.2	..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1.5월중 금융시장 동향).

- 5월 은행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은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에, 기타대출이 감소 전환되면서 전월과 달리 감소
(21.4월 +16.1조원 → 21.5월 -1.6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매매와 전세거래 관련 자금수요 등으로 증가 지속
(모기지론 양도 포함 : 21.4월 +4.2조원 → 21.5월 +4.0조원)
- 반면에 기타대출은 공모주 청약증거금 반환 등의 영향으로 감소한 모습이나, 주택거래 및 주식투자 관련 자금수요 등으로 감소폭이 제한적
(21.4월 +11.8조원 → 21.5월 -5.5조원)

은행 가계대출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19		2020		2021			21.5월말 잔액	
	1~5월	5월	1~5월	5월	1~5월	3월	4월		5월
은행 가계대출	15.9	5.0	32.4	5.0	35.3	6.5	16.1	-1.6	1,024.1
■ 주택담보대출	14.5	2.9	27.2	3.9	25.3	5.7	4.2	4.0	747.2
■ 기타대출	1.5	2.1	5.3	1.1	10.0	0.8	11.8	-5.5	276.0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1.5월중 금융시장 동향).

□ 금리·환율 : 7월 초순(7.1~7.9일) 금리 하락 전환, 원/달러 추가 상승

- 국고채(3년) 금리는 6월 국내외 중앙은행들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인해 상승세를 보이고, 7월 초에도 추가 상승하면서 2019.11월 이후 최고치(1.48)를 기록한 이후,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으로 큰 폭 하락
(7.1일 1.47% → 7.9일 1.38%, 0.09%p 하락)
- 원/달러 환율은 6월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글로벌 달러화 강세로 상승세를 보이고, 한은 관계자들의 금리 인상 시사 발언에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외국인들의 주식 순매도가 이어진 영향 등으로 추가 상승
(7.1일 1,133.1원 → 7.9일 1,149.1원, 16.0원 상승, 2020.10.8일 이후 최고)

주요 금리 및 환율

(%, 원)

	2019		2020		2021				
	4/4	1/4	2/4	3/4	4/4	1/4	5월	6월	7.9일
국고채(3년)	1.36	1.07	0.84	0.85	0.98	1.13	1.23	1.45	1.38
회사채(3년,AA-)	1.94	2.08	2.25	2.19	2.21	2.06	1.95	1.97	1.87
CD(91일)	1.53	1.10	0.79	0.63	0.66	0.75	0.66	0.68	0.68
CP(91일)	1.69	2.20	1.51	1.11	1.09	1.00	0.97	0.97	0.97
원/달러	1,156.4	1,217.4	1,203.0	1,169.5	1,086.3	1,131.8	1,110.9	1,126.1	1,149.1
원/100엔	1,063.5	1,130.8	1,116.1	1,112.1	1,054.3	1,027.3	1,012.3	1,019.2	1,043.9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금융감독원.

주 : 기말 증가 기준.

4. 산업별 동향

□ 제조업생산 : 5월중 전년동월비 +16.0%, 전월비 -1.0%

○ 제조업생산은 기타운송장비(전년동월비 -11.1%)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반도체(26.9%)와 자동차(32.1%), 기계장비(18.8%), 화학제품(18.4%) 등 다수 업종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함에 따라 전년동월비 16.0% 증가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21.7%)와 중공업(17.5%)에서 두 자릿수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경공업(9.1%)은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

- 전월비 기준으로는 반도체(5.3%), 기타운송장비(3.2%) 등을 제외하고, 자동차(-6.6%), 기계장비(-5.6%), 1차금속(-1.5%), 화학제품(-1.4%) 등 다수 업종에서 동반 감소세를 보인 영향으로 인해 전체 기준 1.0% 감소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104.8)는 금속가공과 기타운송장비 등에서 하락세가 이어진 반면에, 반도체와 기계장비, 자동차 등 다수 주력 업종에서 상승세를 유지함에 따라 전년동월비 1.3% 상승, 전월비 기준으로 0.2% 하락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02.4%로 전월보다 0.3%p 상승하고, 재고출하 순환도는 출하 증가 폭이 더 확대(10.1% → 17.7%, 계절조정 기준 전년동기비)되고, 재고 역시 감소세가 확대(-4.5% → -4.7%)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8%로 전월과 동일 수준을 유지

□ 서비스업생산 : 5월중 전년동월비 +4.4%, 전월비 -0.2%

○ 서비스업생산은 숙박·음식점(전년동월비 -2.0%)에서 3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이고, 도소매(3.2%)와 운수·창고(10.3%), 전문·과학·기술서비스(3.0%) 등에서 전월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체 기준 4.4% 증가

- 전월비 기준으로는 도소매(-1.3%)와 금융·보험(-1.0%), 전문·과학·기술서비스(-1.4%), 교육(-0.6%) 등 다수 업종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숙박·음식점(2.5%) 등에서는 증가폭이 둔화한 영향으로 4개월 만에 하락(-0.2%)

- ICT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 3.6% 증가, 전월비 기준으로는 1.3% 증가

산업별 생산 동향

(2015=100, 전년동기비, %)

	가중치 (2019년)	2019	2020			2021				
			연간	3/4	4/4	1/4	3월	4월*	5월*	전월비*
광 공 업 (원지수)	10,000	106.7	106.3	106.4	112.9	109.8	118.8	114.4	111.9	-
전년동기비 증감률	-	0.4	-0.4	0.2	0.0	4.4	4.6	12.6	15.6	-0.7
제 조 업 (원지수)	9,484.5	106.6	106.3	106.7	112.9	109.1	119.0	115.0	112.5	-
전년동기비 증감률	-	0.5	-0.3	0.4	-0.1	4.4	4.7	13.2	16.0	-1.0
섬 유	135.0	-5.9	-10.5	-8.9	-6.2	-4.5	0.0	25.5	28.6	-2.3
화 학	883.8	-1.3	-3.0	-4.1	-1.2	2.8	8.1	12.3	18.4	-1.4
철 강	454.3	-2.2	-6.3	-9.0	-1.5	-1.9	-1.0	5.9	14.4	-2.7
반도체	1,285.6	11.7	22.6	20.7	12.6	21.9	25.5	29.8	26.9	5.3
컴퓨터, 주변장치	31.3	-8.0	-7.9	-9.7	0.8	-3.2	-4.9	1.8	16.8	4.1
통신, 방송장비	131.5	-2.8	-11.3	-23.5	2.2	28.7	18.6	51.6	52.8	-7.4
의료, 정밀, 광학	218.0	-11.0	3.8	7.2	9.8	17.0	19.9	32.4	40.1	5.2
기계, 장비	819.2	-5.9	3.7	6.7	3.7	9.4	7.1	17.5	18.8	-5.6
자동차	981.6	-0.5	-10.0	-1.0	-2.9	11.2	-0.6	20.1	32.1	-6.6
조 선	206.3	17.6	8.6	9.0	-1.3	-15.6	-17.4	-13.8	-16.7	-1.2
- 중 공 업	-	0.6	0.6	0.7	0.6	5.5	5.0	14.0	17.5	19.4
- 경 공 업	-	-0.6	-4.0	-1.5	-2.9	-0.3	3.3	9.0	9.1	11.6
- 제조업ICT	-	4.8	11.9	8.9	8.5	14.0	13.6	22.5	21.7	8.6
서비스업 (원지수)	1,000	108.4	106.2	105.9	110.5	105.9	111.5	109.5	109.7	-
전년동기비 증감률	-	1.4	-2.0	-1.7	-2.0	2.2	7.8	8.3	4.4	-0.2
도소매	211.3	-0.4	-2.6	-1.6	-1.8	3.1	8.3	9.3	3.2	-1.3
운수및창고	90.3	0.0	-14.2	-16.1	-13.1	-2.4	14.0	15.1	10.3	-0.3
숙박및음식점	61.6	-1.0	-18.5	-15.6	-24.6	-13.1	19.3	8.4	-2.0	2.5
정보통신	79.9	3.6	1.5	0.2	0.0	2.0	4.7	2.9	2.8	1.2
금융및보험	140.9	1.7	14.0	16.4	18.7	15.0	9.9	11.7	7.4	-1.0
부동산	31.8	0.5	5.5	6.2	0.5	-2.6	-0.3	8.7	5.4	1.5
전문·과학및기술	71.0	1.4	0.1	-0.8	0.3	2.1	5.3	6.9	3.0	-1.4
사업시설관리 등	47.7	2.3	-9.9	-9.9	-11.7	-3.8	1.7	5.5	5.3	1.0
교 육	106.0	-0.4	-4.7	-4.3	-3.9	0.2	6.1	4.8	3.1	-0.6
보건및사회복지	94.3	8.1	1.4	0.3	-0.4	0.8	2.3	2.3	3.1	0.8
예술·스포츠및여가	21.7	0.8	-32.6	-33.1	-33.3	-18.0	35.0	35.8	19.8	-4.7
협회·수리및개인	32.1	-1.6	-8.2	-5.0	-10.4	-1.8	16.1	8.0	-3.6	1.2
수도·하수및폐기물	11.4	-0.4	3.3	1.4	2.3	0.5	5.1	6.6	6.2	2.7
- ICT서비스업	-	3.5	4.9	4.8	3.4	4.3	4.9	4.1	3.6	1.3

자료 : 통계청.

주 : *는 잠정치.

5. 고용

□ 취업자 수 : 5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2.3% 증가

○ 지난 5월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에서 전월에 이어 소폭의 감소세가 이어진 반면에, 제조업과 SOC·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수가 동반 증가세를 유지함에 따라 전년동월비 2%대 증가세가 지속(2.5% → 2.3%)

- 제조업의 취업자 수는 2개월 연속 소폭의 증가세(0.2% → 0.4%)
-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는 감소세(-0.2% → -0.2%)가 이어진 반면, SOC·기타서비스의 취업자 수가 전월보다 증가폭이 둔화(3.1% → 2.9%)
- 건설업의 취업자 수도 증가폭이 약간 둔화(7.3% → 6.6%)된 반면, 도소매·숙박음식점의 취업자 수는 전월에 이어 감소 지속(-2.2% → -2.3%)
- 사업·개인·공공서비스및기타 부문은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9.9% → 10.3%)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3.0% → 7.7%),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7.4% → 7.6%)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고,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5.6% → 5.0%)와 교육서비스(3.7% → 2.3%)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전체 규모가 3개월 연속 증가세(4.5% → 4.6%)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3.8%로 전월보다 소폭 상승

산업별 고용 동향

(천명,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5월
전 산업	27,123	26,904	27,068	26,952	26,369	25,818	26,365	26,923	27,214	27,550
전년동기비	1.1	-0.8	-1.1	-1.6	-1.4	-3.7	-1.8	1.2	2.5	2.3
농림·어업	4.1	3.6	0.6	2.4	-0.2	-1.2	2.7	-1.8	-0.2	-0.2
제조업	-1.8	-1.2	-1.3	-2.4	-0.6	-1.0	-0.6	-0.3	0.2	0.4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6	-1.0	-1.2	-1.7	-1.7	-4.3	-2.3	1.7	3.1	2.9
건설업	-0.7	-0.2	0.4	2.2	1.7	-1.0	1.4	4.7	7.3	6.6
도소매·음식숙박업	0.0	-5.3	-6.3	-7.0	-6.9	-9.9	-7.3	-3.5	-2.2	-2.3
전기·운수·통신·금융	0.2	0.7	0.5	-0.3	1.8	0.9	0.7	3.9	5.5	4.4
사업·개인·공공서비스등	3.5	0.9	0.8	0.2	-0.4	-3.4	-1.0	3.3	4.5	4.6
실업률 (계절조정, %)	3.8	4.0	3.8	4.3	4.4	5.4	4.0	3.9	3.7	3.8

자료 : 통계청.

6. 수출입

□ 6월 수출 39.7% 증가, 수입 40.7% 증가, 무역수지 흑자 44억 달러

○ 지난 6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39.7% 증가한 548억 달러, 수입은 40.7% 증가한 504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4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 수출이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도체와 자동차, 일반 기계 등 주요 품목에서 증가세가 지속된 데다, 유가 상승으로 석유 관련 품목에서도 대폭 증가하고, 주요 지역들에 대한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3개월 연속 40% 내외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

- 수입도 원유와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1차산품 수입이 두 배 이상 급증하고, 중간재와 소비재를 비롯해 반도체 제조 장비 등 자본재 수입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40%대 증가율로 확대

* 원유수입은 도입단가(69.9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145.2% 상승하고, 도입물량도 5.9% 증가하면서 전체 금액 기준 159.6% 증가한 55억 달러를 기록

수출입 동향

(억 달러,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3/4	4/4	1/4	2월	3월	4월	5월	6월
수출	5,422 (-10.4)	5,128 (-5.4)	1,301 (-3.5)	1,419 (4.1)	1,465 (12.5)	447 (9.3)	537 (16.4)	512 (41.2)	508 (45.6)	548 (39.7)
수입	5,033 (-6.0)	4,676 (-7.1)	1,141 (-8.7)	1,237 (-1.7)	1,362 (12.1)	422 (14.2)	496 (18.7)	508 (33.9)	478 (37.9)	504 (40.7)
무역수지	389	452	160	182	103	25	41	4	29	44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1)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2) 6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 13개 주력 품목 수출 동반 증가, 12개 품목이 두 자릿수 이상 증가율

○ 반도체 : 신규 CPU 출시와 주요 데이터센터 업체들의 서버 증설 등으로 D램 등 메모리 주문 확대가 본격화되고, 파운드리 물량 증가와 모바일

시장에서의 견조한 수요 흐름 등에 힘입어 수출이 12개월 연속 증가세

- **자동차** :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인한 미국·EU 등 주요 시장에서의 소비 심리 회복, 친환경차·SUV 수출 단가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6개월 연속 증가세
- **자동차부품** : 반도체 수급 리스크와 인도의 코로나 봉쇄 장기화, 일부 공장들의 생산량 조절 등의 영향에도 미국·중국 등 주요 지역에서 자동차 판매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한 데 힘입어 수출이 8개월 연속 증가세
- **선박류** : 해상운임 상승으로 컨테이너선 중심의 글로벌 발주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력 선종인 탱커 및 가스선도 지난 6월중에 다수 인도된 영향으로 인해 수출이 2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
- **디스플레이** : 국내 LCD 생산 감축에 따른 수출 감소 영향에도 비대면 IT 제품 수요에 따른 LCD 가격 상승과 글로벌 OLED 스마트폰 수요 확대 등이 이어지면서 수출이 3개월 연속 증가세
- **무선통신기기** : 유럽 시장에서의 판매 호조에 따른 완제품 수출 증가와 인도·중동 등 新시장 중심의 5G 스마트폰 판매 호조, 중국 스마트폰 생산 증가에 부품 수출 수요가 이어지면서 수출도 8개월 연속 증가세
- **철 강** : 국내 공급 부족에 따른 수출 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 강세 및 글로벌 철강 수요 회복으로 인한 수출단가 상승과 건설·자동차 등 전반산업 경기가 크게 개선되면서 수출도 6개월 연속 증가세
- **섬 유** : 글로벌 섬유 수요 회복과 의류 등의 팬트업 효과로 수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과 EU 등지의 소비 회복에 따른 의류, 자동차 등 전방산업들의 업황이 개선된 데 힘입어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세
- **석유제품** : 북반구 여름철 드라이빙 시즌에 따른 석유 수요 증가와 주요국들의 경기 회복으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백신 보급에 따른 항공 노선 증편 등으로 항공유 수요가 이어지면 수출도 4개월 연속 증가
- **석유화학** : 글로벌 공급 차질의 정상화와 대규모 설비 증설 등의 영향에

도 국제유가 상승과 전방산업 수요 지속으로 높은 수출단가가 이어지고, 주요국들의 경기 회복세가 유지되면서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

- **일반기계** : 자동차, 반도체 등 전후방 산업들의 양호한 수출 증가세로 인한 기계설비 수출 증가,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건설기계 수요 증가, 머시닝 센터 등 최근의 급격한 수주 증가 등에 힘입어 4개월 연속 증가세
- **가 전** : 해외 공장 가동의 정상화까지 국내 출하량의 높은 수준이 유지되는 가운데, 미국·EU 등지의 경기 회복세, 우리 기업들의 프리미엄 가전에 대한 수요 증가 및 단가 상승 등으로 전체 수출이 12개월 연속 증가세
- **컴퓨터** : 낸드플래시 단가 하락에 따른 SSD 판매 단가의 동반 하락에도, 중국의 데이터 현지화 추세를 비롯한 하반기 글로벌 IT기업들의 데이터센터 구축 재개 등으로 물량이 증가하면서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세

산업별 수출 동향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3/4	4/4	1/4	2월	3월	4월	5월	6월
자동차	5.3	-13.1	1.6	1.1	31.5	46.9	15.3	73.4	93.7	62.5
자동차부품	-2.5	-17.3	-15.7	3.8	5.6	0.2	12.5	99.9	182.2	108.2
선박류	-5.3	-2.0	-8.2	32.1	28.2	3.5	62.8	14.4	-14.9	41.2
일반기계	-1.9	-8.8	-11.0	-5.1	-1.4	-5.8	6.1	17.1	25.8	21.5
철 강	-8.6	-14.4	-12.6	-6.5	7.6	3.5	12.9	38.9	62.8	51.7
석유화학	-14.8	-16.4	-16.5	-7.7	26.8	23.6	48.5	83.3	94.9	68.5
석유제품	-12.2	-40.6	-43.8	-44.7	-16.5	-12.2	19.2	99.2	166.8	79.6
섬 유	-8.0	-13.3	-7.6	-6.5	-8.4	-24.1	8.9	46.4	57.5	36.8
가 전	-3.6	0.5	16.4	18.9	15.7	10.0	17.9	69.3	89.3	47.6
무선통신기기	-17.6	-6.4	-14.4	11.8	21.6	10.2	5.8	79.7	41.4	3.5
컴퓨터	-20.6	57.2	82.4	8.5	2.8	-4.1	6.9	1.6	7.5	16.6
반도체	-25.9	5.6	6.9	18.7	14.0	13.1	8.6	30.2	24.5	34.4
디스플레이	-17.0	-12.3	-17.7	17.8	16.3	19.1	-1.1	43.5	38.6	28.2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부 록 | 美 바이든 행정부 '4대 핵심품목' 공급망 검토 결과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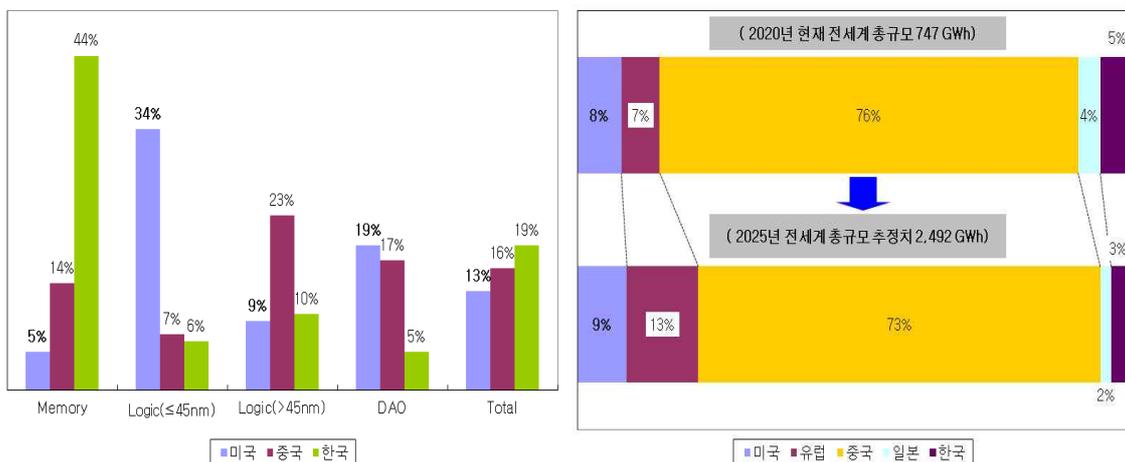
포스코경영연구원(2021.6.16일)

- 지난 6월 초에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등 4대 핵심품목들의 공급망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전략 방향으로 미국 제조 역량 강화, 공급망 내 중국 의존도 완화, 동맹국 협력 증대 등을 제시

□ 4대 품목별 주요 내용

- **(반도체)** 미국은 설계 및 첨단패키징 분야에서 최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제조 및 단순 패키징 분야는 열위에 있으며, 수급 불안정성 해소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한 투자 촉진과 지원 정책 확대가 필요
 - 핵심 검토품목으로는 로직, 메모리, 아날로그 반도체 등이 있으며, 설계-제조-조립 및 패키징 단계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는 바, 종합 반도체 업체(IDM)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비메모리 분야는 인텔 등 미국 기업이, 메모리 분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두각
 - **(리스크 평가)** ▲ 투입요소多, 높은 글로벌화, 특화된 산업구조로 小중격에도 공급망 붕괴 가능성 ▲ 높은 대중 판매의존도 ▲ 전자 및 반도체 산업의 클러스트화로 인한 중국의 사장 지위 상승 등
 - **(정책 제언)** ◎ 초당적 반도체 지원 법안에 근거한 우선 재정 지원(500억 달러 규모) ◎ 제조설비, 소재 등 핵심부문의 제조 생태계 강화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 해외 파운드리 및 소재 공급사의 미국 유치 통한 공급망 탄력성 제고 ◎ 제조 및 첨단패키징 분야의 미국 기술 보호

< 반도체 유형별 글로벌 생산능력 비중 > < 배터리 셀 제조능력 현황 및 전망 >



자료 : 백악관 공급망 검토 보고서(2021년 6월 8일).

- (배터리) 핵심 검토품목으로서 리튬 이온 배터리로 밸류체인 단계 중 핵심 원료 생산 및 가공과 셀 제조단계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바, 미국은 높은 수요에도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 (리스크 평가) ▲ 핵심 원료 공급 및 제련 역량 부족(글로벌 셀 제조능력의 8%) ▲ 제한적 전기차 지원 정책으로 관련 인프라 투자 저조 및 숙련 노동력 부족 ▲ ‘잠재 적성국’인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
 - (정책 제언) ● 자국 생산 고용량 배터리 사용 최종소비재(전기차 등) 수요 촉진 지원 ● 핵심 원료/광물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 및 대체재 R&D 지원 확대(리튬 국내 생산/재력 촉진, 동맹국 공동 니켈 제련 투자 등) ● 차세대 배터리 개발 지원 등 혁신 투자 확대 및 인력 양성 지원
- (핵심광물/소재) 전략적 핵심광물/소재는 국가위기 상황에서 군사, 산업 및 필수 민간물자 공급용 소재로서 수요를 충족할 만큼의 충분한 양을 미국 내 확보·생산하기 어려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급 확보가 관건
 - (리스크 평가) ▲ 소수 국가에 대한 생산 집중 및 높은 수입의존도(중국이 글로벌 희토류 생산능력의 55%, 제련 85% 차지) ▲ 소량 생산에 따른 높은 가격 변동성 ▲ 수출규제, 기술탈취 등 불공정 무역관행
 - (정책 제언) ● 전략적·핵심광물 집약 산업 신지속가능성 기준 마련 ● 리사이클링 포함 국내 생산 및 가공 능력 확대 ● 국가 비축량 증대, 수입규제 검토 ●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및 글로벌 공급망 투명성 강화
- (의약품) 공급망 구조는 원료제조 → 정제화학품 제조 → 원료의약품(API) 제조 → 의약품(FDF) → 시장 출시로 이루어져 있으며, 낮은 생산비로 인한 해외 생산 집중으로 필수 의약품 조달에서의 취약성이 존재
 - (리스크 평가) ▲ 의약품의 제조설비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구조(의약품 52%, API 73%) ▲ 비용, 시간제약 등 신규 생산설비 투자의 어려움
 - (정책 제언) ● 미국/동맹국 의약품 제조·유통 과정의 경제성 향상 지원 ● 공급망 탄력성 증진 위한 동맹국 고위급 회담 발족 ● 필수약품 리스트 평가 위한 컨소시엄 구성 ● 정보 및 데이터 취합 체계 개선

□ 한국에 대한 시사점

-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한국 경쟁력 보유 분야에서의 미국 정부 지원 확대 및 공급망 재편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기회 요인 존재
- 반면에 미국 정부가 공급망 내 중국의 위상 약화를 목표로 동맹국 협력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반발에 따른 리스크 요인도 존재
-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 및 기술력 강화로 공급망 내 위상 제고 및 원료 조달 리스크에 본격 대비할 필요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월 (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7.12)	(7.13)	(7.14)	(7.15)	(7.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기계수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수출입통계 🇺🇸 6월 소비자물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산업생산(수) 🇪🇺 5월 산업생산 🇰🇷 6월 고용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산업생산 🇨🇳 6월 소매판매 🇨🇳 6월 고정투자 🇨🇳 21.2분기 실질GDP ● 5월 소매판매(수) ● BOJ 통화정책회의 🇺🇸 6월 산업생산 🇰🇷 금융통화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수출입통계 🇪🇺 6월 소비자물가(수) 🇺🇸 6월 소매판매
(7.19)	(7.20)	(7.21)	(7.22)	(7.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소비자물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무역수지(잠) 🇰🇷 6월 생산자물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CB 통화정책회의 🇺🇸 6월 경기선행지수 	
(7.26)	(7.27)	(7.28)	(7.29)	(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소비자신뢰지수 🇺🇸 6월 내구재수주(잠) 🇺🇸 연준 FOMC(7.28일) 🇰🇷 21.2분기 실질GDP (속보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경기선행지수 (수정치) 🇰🇷 7월 소비자동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무역수지(수) 🇪🇺 7월 경제제감지수 🇺🇸 21.2분기 실질GDP (예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산업생산(잠) ● 6월 소매판매(잠) ● 6월 실업률 🇪🇺 7월 소비자물가(예) 🇪🇺 6월 실업률 🇪🇺 21.2분기 실질GDP (예비치) 🇺🇸 6월 개인소비 🇰🇷 7월 기업경기실사수 🇰🇷 6월 산업활동동향
(8.2)	(8.3)	(8.4)	(8.5)	(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ISM 제조업지수 🇰🇷 7월 수출입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소비자물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소매판매 🇺🇸 7월 ISM 비제조업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무역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경기선행지수 (잠정치) 🇺🇸 7월 고용보고서